

전남도 쌀 자체매입 방안 마련

300억~400억원 들여 3만6천t 매입

농진기금 활용·농협 대출로 예산 확보 RPC 무이자 용자...전남도 이자 보전

전남도가 넘쳐나는 전남산 재고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자체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영 지사가 밝힌 전남도 내 재고 쌀 자체 매입 방안 검토에 대한 후속 대책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박 지사는 당시 민주당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전북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직접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다”면서 재고 쌀 처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자 “300억~4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도내 쌀 3만6천t 정도를 자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우선 매입 규모와 구매 자금확보를 위해 현재 자체 매입하고 있는 전북도를 상대로 벤치마킹에 나섰다.

현재 전남도는 재고 쌀 자체 매입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일부를 활용하고 농협에서도 자금을 끌어들이 RPC(미국중합처리장)에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최소 300억 원(쌀 2만7천t물량)의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0억 원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나머지 200억 원은 농협에서 받는 방안이다.

쌀을 매입하는 RPC에 무이자로 용자를 해주는 대신 전남도가 이자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자체 매입에 들어간 전북도의 경우도 농림수산발전기금에서 매입자금 150억 원을 지원해 1만2천t을 추가로 매

입하고 있다.

전남도가 이처럼 자체 매입에 나선 것은 전남산 쌀 재고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전남 쌀 생산량마저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방편 중 하나다.

실제 전남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 90만1천t에 비해 1.7% 줄어든 88만6천t으로

예상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이다.

매년 쌀 생산량의 15% 이상이 재고로 남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전남의 경우 쌀 생산량 중 15만t 가량이 재고로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우 지난 9월 말 현재 전남 쌀 재고량 2만1천t까지 포함하면 누적 쌀 재고량은 17만t 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재고 쌀은 더욱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전국 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이 연일 쌀값 보장과 추가 매입, 대북 쌀 지원 등을 요구하며 눈을 갈아엎고 시·군 농협

RPC(종합미곡처리장) 봉쇄에 들어가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면서 농도(農道) 전담으로서는 재고 쌀 문제와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전남도가 자체 구매라도 해서 쌀 재고량을 줄여 쌀값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자체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 자체 쌀 매입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과 농협에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에 대해 지사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사과 나누며 사랑 전하세요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 임직원들이 22일 ‘애플데이’를 맞아 광주 송원여상에서 사과 무료증정 행사를 갖고 있다. 애플데이는 ‘사과’를 나누며 용서와 화해 등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차원에서 지정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하루 185명 암으로 죽는다

2007년 6만7천여명...사망원인 1위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며 해당암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22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7년 기준으로 6만7천여명이 암으로 사망해 교통사고 사망자 6천명의 11배나 되며 하루 평균 185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암 발생 증가율은 연 2.5%로 지난 1999년 10만1천32건 발생했던 암이 지난 2005년에는 14만2천610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또 “지난 2007년 6만7천783명인 반면 남성은 4만2천778명으로 여성사망자의 두 배 가까이 됐다”며 “또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이 가장 자주 발생하고 이어서 폐암·대장암·간암·갑

상샘암·유방암·자궁경부암 순이었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이어 “한국 국민이 평균 수명(남자 75세, 여자 82세)까지 살 경우, 남자는 3명 중 1명(31.9%), 여자는 4명 중 1명꼴(25.5%)로 암에 걸리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같은 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인의 ‘해장암’ 사망률은 암 가운데 가장 높은 92.2%였다”며 “지난 1993년 이후 2005년까지의 ‘5년 생존율’을 보면, 모든 암의 종류에서 평균 11%의 증가세(41.2%→52.2%)를 보였으나 유일하게 해장암의 경우에만 -1.6%의 감소세(9.4%→7.8%)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이 22일 광주시청 집무실에서 국제대학스포츠 연맹 페드로 디아스 집행위원과 U대회 성공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U대회 아마추어 이미지 깨야 성공”

디아스 FISU 집행위원 박광태 시장 면담

페드로 디아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집행위원은 22일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아마추어 대회라는 이미지를 깨야 한다”고 밝혔다.

U대회 준비에 대한 조언차 광주를 방문한 디아스 집행위원은(포르투갈)이날 박광태 광주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2015 대회를 치러내는 것은 물론 앞으로 향후 6년간의 준비 기간은 광주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아스 집행위원은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세계 스포츠 경기 연맹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올림픽에서 뛸 수 있을 정도로 유망한 대학소속 스포츠선수를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는 광주의 유산이자, 한국으로서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될 것이다”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전략적으로 잘 연계될 하면 세계적인 조명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디아스 집행위원은 “광주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 노하우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어느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보다 광주 대회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광태 시장은 디아스 집행위원을 포용으로 환영하면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큰 관심과 믿음을 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디아스 집행위원은 박 시장과 면담 후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풋살 강연회를 갖고 2015 U대회가 열릴 월드컵경기장, 화순체육관, 호남대 체육관을 방문했다.

축구선수 출신으로 UEFA & FIFA 풋살 챔피언십 위원, 풋살 국영TV해설자, 포르투갈 민호(Minho)대학 스포츠학과 스포츠 시설 관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2만명 증가

지급기준 소득 2만원 올려

서민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내년 초부터 12만명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현행 월 68만원(1인 기준)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인 부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소득은 월 108만8천원에서 112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합친 금액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기준이 된다.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변경은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월 앞당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소득기준 변경과 노인인구 자연증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올해 363만명에서 내년초 37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 이상인 기초노령연금과장은 “9월말 현재 전체 노인의 68.6%인 358만5천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으며 이번 기준소득 상향 조정으로 연초부터 수급률이 70%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